

[전체공지]

교황님 기도 지향

<일반 지향> 아프리카의 젊은이들이 자기 나라에서 교육을 받고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 제 9 차 동남부 성령대회
일시- 9 월 2 일(주일) 오후 1 시 30 분 - 9 월 3 일 오후 5 시
장소- 애틀란타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강사- 미셸 모란(전 세계 성령쇄신 봉사자 회장)
박효철 베네딕토 신부(전 한국 성령쇄신 봉사자 협의회 회장)
- ※ 성모님과 함께 하는 세나클 여정 피정 안내
일시- 9 월 7 일(금요일) 오후 4 시 -9 월 9 일 오후 2 시
장소- St. Leo Benedictine Abbey, St. Leo FL 33574
대상- 가톨릭에서 세례를 받은 신자
참가비- \$200
강사- 김태광 아우구스티노 신부(천주교 사도직회)
- ※ 제 12 회 돈보스코 골프대회 (탐파 성당)
일시- 10 월 7 일(주일) 오후 1 시
장소- Temple Terrace Golf & Country Club
신청마감- 각 본당 사목회장님께 9 월 25 일 까지

[잭슨빌]

- 다음 주 수요일 미사는 없고 금요일 미사와 성시간 있습니다.
- 성령대회와 성령대회에 참석하시는 신부님과 우리 성당에서 참가하는 모든 분의 안전운전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여행 중이신 교우분들의 안전하고 기쁜 여행을위해 기도합니다.

[게인즈빌]

- 사목회의가 9 월 8 일에 있겠습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공동체	주일봉헌금	교 무 금	건축헌금	기 타	총 계
게인즈빌	\$150	\$700	-	-	\$850
잭슨빌	\$350	\$370	-	\$500	\$1,220



聖 최경환 프란치스코 한인 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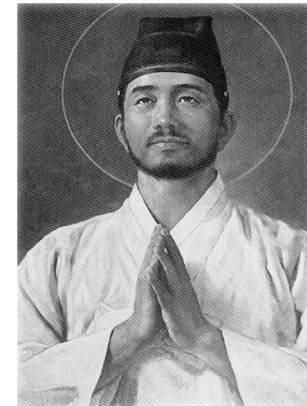
St. Francis Choe Korean Catholic Mission

주임신부 김영수 스테파노 (904) 525-4809

성당 (904) 573-1833

잭슨빌 성당 St. Francis Choe Catholic Mission, 8051 Rampart Rd. Jacksonville, FL 32244

게인즈빌공동체 St. Patrick Parish, 550 NE 16th Ave. Gainesville, FL 32601



聖 최경환(崔京煥) 프란치스코(1805-1839)

잭슨빌 한인 성당		게인즈빌 한인 가톨릭 공동체	
주일 미사	일요일 오전 10 시 30 분	특전 미사	토요일 오후 7 시
평일 미사	매주 수요일 오후 8 시, 첫째 금요일 성체현시 및 미사	평일 미사	둘째, 넷째 금요일 오후 7시30 분 성가대 연습실
성령 기도	매주 금요일 오후 8 시	성령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9 시
성프란치 스코 기도회	매주 (목) 오전 11 시	레지오	-
성시간	첫째 주 금요일 미사 후	주일학교	매주 토요일 미사 후
예비자 교리	매주 주일 미사 후	예비자 교리	매주 토요일 미사 후
사목회의	첫째 주 주일미사 후	사목회의	첫째 주 특전 미사 후
사목회장	어인수 안토니오 (904) 866-0708	사목회장	천창준 레오 (860) 906-6567

www.stfccm.org

https://www.facebook.com/StFrancisChoe

오늘의 묵상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자,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를 따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정·부정 규정 때문에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서 폭탄선언을 하십니다.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이 말씀은, 악은 자기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아담은 하느님께서 금지하신 열매를 먹고는 책임을 미룹니다. "당신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창세 3,12). 이러한 핑계와 책임 전가는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기본적인 죄가 아닐까요? 더욱이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을 피해 숨어 있었지요(창세 3,8 참조). 잘못을 저지르고는 하느님의 존재가 불편해졌기에 자신을 하느님으로부터 소외시킨 것입니다.

이후 카인은 동생 아벨을 질투한 나머지, 들로 데리고 나가 죽이고 맙니다(창세 4,1-8 참조). 이처럼 하느님과 신뢰가 무너지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도 무너집니다. 결국,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소외시키게 됩니다.

죄를 극복하고 마음을 정화하려면 제 2 독서 말씀처럼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고 흠 없는 신심은, 어려움을 겪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주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김준철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 8. 찬미하여라 >



Bless the Lord, my soul, and bless God's ho - ly name.
찬 미 하 여 라 오 나 의 영 혼 아 -



Bless the Lord, my soul, who leads me in - to life.
찬 미 하 여 라 거 룩 한 주 이 름

연중 제 22 주일

[제 1 독서] 신명기 4,1-2.6-8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무엇을 보태서는 안 된다. 주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화답송] 시편 15(14),2-3 ㄱ.3 ㄴ.4 ㄱ.5(◎ 1 ㄱ)

◎주님, 당신의 천막에 누가 머물리이까?

[제 2 독서] 야고보서 1,17-18.21 ㄴ-22.27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하느님 아버지는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어 우리가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네.

◎알렐루야.

[복음] 마르코 7,1-8.14-15.21-23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전례 봉사자>

공동체		해 설	제 1 독서	제 2 독서	봉 헌
이 번 주	게인즈빌 (9/1)	최건화 안젤라	고승희 엘리자벳	백진 프란체스카	
	잭슨빌 (9/2)	한상신 디나	김현희 아네스	송재민 하상바오로	김정숙(젬마) 렉시(베로니카)
다 음 주	게인즈빌 (9/8)	신미영 미카엘라	백현 가브리엘	백준 빈첸시오	
	잭슨빌 (9/9)	윤미임 데레사	조종래 미카엘	조의단 아네스	이교순(카타리나) 이문자(모니카)

<미사 성가>

공동체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견
게인즈빌	281	96	406	327
잭슨빌	20	332	152	286

